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윤석영 라파엘, 이해정 골레오파

다음주 독서: 신태영 알베르토, 정나미 모니카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최미라 베아트리카, 조은경 수산나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 헌 금: \$ 423

2 차헌금: \$ 124

합 계: \$ 547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오늘의 묵상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 성인은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겨우 1 년 사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앙이 뿌리를 내릴 때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 성인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한지요.

박해 시대에 사제가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예수님처럼 박해자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이사 53,7) 그 모든 고통을 의연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인은 산제물이 되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희망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였지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5-37).

오늘날은 더 이상 박해도 없고, 순교를 강요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정신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순교만큼이나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온통 세상에 맞들이고 중독되어 있어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참된 진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순교의 영성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2011 년 7 월 2 일

<제 1 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제 2 독서> 로마서, 5,1-5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마태오복음, 10, 17-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시작: 287 봉헌: 216 성체: 499 파견: 283



마음은 있는데...

박상훈 알렉산더 신부

“엄마, 화나고 슬프고 외로우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웃겨줄게 내가 얼마나 웃기는데.” 신현림 시인이 자신의 딸이 쓴 일기 한 구절을 시에 인용한 것 입니다. 이 딸, 재밌네요. 엄마를 보는 눈이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그러니 엄마도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네요: “너를 안으면 다시 인생을 사는 느낌이다...// 네 눈빛 어두운 내 안의 우물을 비추고 // 네 손길 스치는 것마다 향기로운 구절초를 드리우고 // 네 입술 내 뺨에 닿으면 와인 마시듯 조용히 취해간다.”(신현림, “슬프고 외로우면 말해, 내가 웃겨줄게”)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은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이거 아닐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함께” 하고 싶은 갈망. 뭐 어느 때는 그냥 깔고 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요. 함께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어려움에 맞서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의 핵심을 “함께”라고 봤어요 (원래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유니언(union)”인데요, 그냥 “함께”로 바꿔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아내 혹은 남편과도 함께 있고, 친구와도 함께 있고, 하느님과도 함께 있고, 내 이웃과도 함께 있고, 나 자신과도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진실이나 자유도 물론 필수적이지만, 좋은 삶의 출발점은 역시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해요.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해야 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쁜 삶, 즉 죄라고 생각했지요. 이 말로 어거스틴은 복음서에서 무엇을 죄라고 부르는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강박이 되어 있지요. “오늘 세 번 화를 냈어요,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작년에 세금 낼 때 정직하지 못했어요, 지난 주 미사를 빠졌어요...” 잠깐, 잠깐, 이게 정말 내가 마음 깊이 느끼고 갈등하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대개 윤리적으로 나쁜 태도, 동기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너무 심약하고 유혹에 약해서 이런 저런 잘못을 했구나. 아, 쟤장!” 그 다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들을 종류와 횟수에 따라 일정하게 묶어 냅니다. 죄는 후회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상자 안에 잘 포장됩니다. 이런 게 죄라면, 왜 예수가 죄를 아는 사람이 은혜도 훨씬 더 깊이 안다는 말을 했을까요? 진짜 죄는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를 알고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서 죄는 상상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고 깊게 우리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죄는 우리가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 다음 주 일요일 (7 월 10 일) 오전 10 시 30 분에 밀워키 한인 성당 본당 승격 감사 미사가 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부님이나 사목회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들과 성모회장님, 구역장님들은 미사 후에 성당 오피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약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강해서 저지릅니다. 복음서에는 죄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를 뒤집는 예수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루가 10: 25-37)입니다. 여기서 누가 죄인일까요? 도둑질한 강도는 아예 이야기 언저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죄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하지 않은 레위 사람과 사제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는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서 생깁니다.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레위 사람과 사제의 죄는 이들이 “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일어 났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죄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려고 부대껴 보지 않는 것.” 죄는 우리가 했던 것, 피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환각적인 자기 만족으로 삶에서 그냥 편안함만을 느낄 때, 분별도 없고 차갑기만 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고통에 아무런 마음의 부대낌도 느끼지 못할 때,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공감할 줄 모를 때, 바로 그때 생겨 납니다.

7 월 1 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고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해서, 예수의 마음에 대해 다른 날 보다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지난 주 사제 서품 십 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선물들을 받고 나니, 제가 그런 사랑과 격려를 받을 만한 건가,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감사했지만요. 예수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신도 평생을 그 한 마음으로 살아 갔지요. 사랑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했구요. 자비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려운 문제나 혼란스런 상황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꺼게 들어가려는 마음 가짐을 말합니다. 예수가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무질서 안으로 들어 오신 것 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려고 함께 부대껴 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탁월한 덕입니다. 예수에게, 사랑과 자비의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었지요. 예수는 이 두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건 제 자신의 변명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거나 했나요?